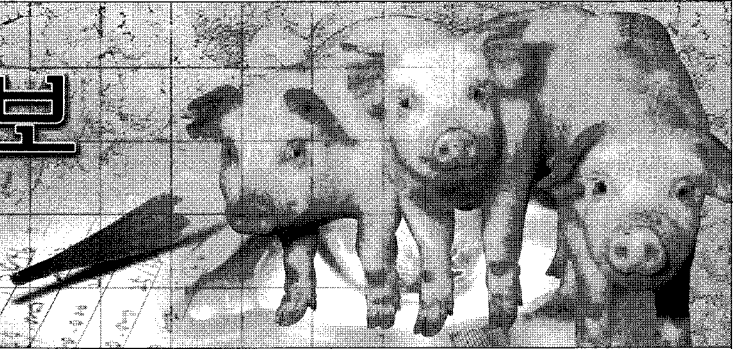


# 축산정보



## 돼지 도축두수 계속 줄어

돼지 도축두수가 계속 줄고 있다. 농림부는 6월 돼지 도축두수가 총 102만5,568두로 전월 106만 529두보다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6월 도축두수는 전년동월 111만9,480두에 비해 8.4% 정도로 크게 줄었다.

이중 암돼지는 51만5,455두로 전월대비 3.5% 감소하고, 수돼지는 51만113두로 3.1%나 감소했다. 또한 1월~6월 상반기 돼지 도축두수는 총 666만8,986두로 전년동기 723만6,593두대비 7.8% 감소했다.

한편 2/4분기 평균 생체중도 108kg으로 나타나 1/4분기 110kg 대비 2kg이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최대

미국산 돼지고기가 7월에도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돼지고기는 7월중 2,121톤이 수입됐으며, 7월까지 누계 수입량은 2만9,246톤이 수입돼 전체 누계 수입량 11만6,208톤의 25.2%를 차지했다.

또한 7월까지 수입된 미국산 냉장돈육의 양은 2,554톤, 냉동돈육

은 2만6,693톤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산 냉장돈육은 전체 냉장돈육 수입량의 65.6%를 점유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전체 누계 수입량은 작년 12월까지의 총 수입량보다도 많아 수입 돼지고기의 점유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별로는 7월 한달 동안 미국산이 2,121톤, 캐나다 1,515톤, 벨기에 1,326톤, 칠레 1,311톤이 수입됐으며, 부위별 수입량은 삼겹살 5,364톤, 갈비 1,420톤, 목심 1,147톤 등으로 나타났다.

##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재고 크게 증가

6월 돼지고기 재고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심, 등심, 후지 등 저지방부위 재고량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회원사 29개소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6월 돼지고기 조사재고량은 총 6,938톤으로 전월대비 8% 증가했다.

특히 안심은 66톤으로 전월대비 17.7% 증가, 등심은 407톤으로 25.6% 증가했으며, 전지와 후지는 773톤, 1,041톤으로 전월대비 각각

77.9%, 26.6% 늘어났다.

반면 삼겹살과 목등심, 갈비는 재고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겹살은 조사재고량 2,436톤으로 전월대비 1.2% 감소, 목등심은 1,040톤으로 전월대비 9.9% 감소했으며, 갈비는 714톤으로 전월대비 24.7% 크게 감소했다.

## 양돈사료 생산량 계속 감소세

-6월 40만톤, 전년동기대비 4.9%·전월대비 3.5% 감소

양돈사료량이 계속 줄고 있다.

6월 양돈사료량은 약 40만톤으로 전월 41만5천톤대비 3.5% 감소, 전년동월 42만2천톤대비 5.2% 감소했다.

또한 1~6월까지 누계 생산량도 250만8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9% 줄었는데, 이처럼 양돈사료량이 적게 생산된 것은 돼지두수가 적고, 3~5월 사이 돼지폐사가 사상최고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용도별로는 젃먹이돼지가 2만 1,840톤, 젃펜돼지 10만6,535톤, 육성돈전기 10만7,847톤, 육성돈후기 6만4,664톤, 비육돈 5,475톤, 비육돈출하 8,207톤, 번식용수돼지 821톤, 번식용암돼지 998톤, 임신

돼지 5만155톤, 포유돼지 3만 3,900톤으로 집계됐다.

### 졸업 후 영농 희망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어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개편안 확정, '06년 1학기부터 시행

농림부와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이하 농촌희망재단)'은 지난 7월 29일 '농어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은 졸업 후 영농을 희망하는 학생은 농어업인의 자녀여부에 상관없이 농과대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한다는 것과 모든 농어업인 대학생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별도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농과대학생 중 비농어업인의 자녀가 영농을 희망할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농어업인의 자녀가 농과계 외 일반대에 다닐 경우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금년 2학기에는 종전과 같이 농과계 대학생을 지원하되, 소요자원을 고려해 2학기 등록금의 50%를 지원토록 했다. 한편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개편안으로 인해 학자금 규모가 2005년 1학기 71억원에서 금년 2학기에는 35억만 지급될 예정"이라며, "지원혜택으로 학업을 유지하는 저소득층 농과계 자녀의 학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 상반기 돼지고기 수출량 큰 폭 감소

농림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농림축산물 수출실적에 따르면 돼지고기 수출량은 4,900톤, 수출액 75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41.7%, 35.9% 각각 크게 감소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농축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7.1% 증가해 10억2,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농산물은 8억9,500만불, 축산물 7,400만불, 임산물 5,200만불로 집계됐다. 국별로는 일본으로의 수출량과 수출액이 가장 높았다.

### 한-EFTA FTA, 돼지고기 양허 제외

지난 7월 12일(화)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간의 FTA 협상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우유 등 주요 축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EFTA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내 자유무역연합체를 말하며, 양허는 상대국 요청에 따라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 중 스위스에 498개(34%), 노르웨이에 669개(46%), 아이슬란드에 841개(58%) 품목을 양허했으며, 쌀, 육류, 낙농제품, 과실류, 양

념류 등 국내농업에 영향이 올 수 있는 주요 품목은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배합사료와 사료첨가제, 말(경주), 종우, 소정액, 기타수정란 등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 한-싱가포르 FTA 체결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 8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림 흥키앙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칠레에 이어 두 번째 FTA 체결국이 되었다.

정부는 한-싱가포르 FTA 비준 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10월 중 양국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칠레와는 달리 돼지고기 수입국가이다.

### 열처리 돼지고기 일본 수출길 열려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길이 다시 열렸다. 농림부는 그동안 열처리 돼지고기의 대일본 수출을 위하여 일본측과 협의를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22일 일본 정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열처리 돼지고기 동물위생조건'을 제정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일본 농림수산부 위생관리과 히로부미 쿠지타 과장은 서신을 통해 한국산 열처리 돈육 일본 수입조건

을 알리고, 작업장 승인요청시 현지조사 예정, 현지조사시 교통편 및 통역 협조요청, 검역증명서 양식 및 봉인지 등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열처리한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농림부는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를 통해 수출희망업체를 파악하도록 하는 한편, 이후 작업장 승인신청, 현지점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해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수출의향을 제시해야 한다.

### 우수 축산물브랜드 12점 시상 계획

오는 10월 28일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되는 '2005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에서 한우·돼지 브랜드 중 우수 축산물 브랜드 12점이 시상될 계획이다.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참여대상은 한우·돼지 생산자 브랜드 중 참여희망 업체이며, 경진대회 참여업체 유치는 8월 25일까지이다.

경진대회 참여업체 현장실사 및 평가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업체는 10월 28일 경진대회 개막식에서 시상되며, 시상은 종합상 8점, 부문상 4점으로 총 12점이다. 종합부문 대상에는 한우 1점, 돼지 1점으로 각각 국무총리상과 1천만원·무이자 20억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종합부문 최우수상(한우, 돼지 각 1점)에는 농림부장관상과 5백만원·무이자 10억원, 우수상(각 2점)에는 농림부장관상과 5백만원·무이자 5억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 A등급 출현율이 감소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의 7월 등급판정결과 A등급 출현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A등급 출현율은 7월 35.9%로 올해 1월부터 지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E등급은 3.7%로 오히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돼지도체 등급판정두수는 98만2,809두로 전월대비 4.2% 감소했으며, 이중 A·B등급 출현율은 67.9%로 전월대비 0.2% 감소를 보였다.

이중 A등급은 35.9%로 전월대비 1%P 감소, 전년누계대비 1.2%P 감소했으며, B등급은 전월대비 0.8%P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대비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의 돼지도체 kg당 평균경락가격은 전월대비 367원 하락한 3,342원이었다.

### 검역원·수의사 양돈발전 위해 함께 노력키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8월 5일(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수의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돈현장의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장수의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문일 검역원장을 비롯해 방역과장 등 양돈질병 전문가와 한국양돈수의사회 김홍집 회장, 이원형 전임 회장 등 현장수의사 등이 참석해 최근 돼지 만성 소모성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 등 양돈업계의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강문일 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방역대책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현장수의사들도 현장의 방역조치 등에 대한 협조와 올바른 농가지도 등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철저한 방역 위해 생산자 단체·방역본부간 긴밀한 협조 필요

-축산단체 방역실무자 협의회서 강조  
돈열과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소모성 질병 등 양돈질병 방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지난 8월 11일(목) 방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 방역본부 관리국장 및 본회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축산단체 방역실무자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협의했다.

방역본부는 이날 본부에서 수행한 2005년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과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본회는 향후에도 돼지소모성 질병 등에 대해 방역본부에서 적극적으

로 대책을 수립하고 활동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본회는 돈열 및 돼지고기 제스키병 등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시행 시에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 구제역! 방심은 금물

—“구제역! 방심은 금물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부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동북아 지역에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 홍보 리후렛을 배부했다.

### 구제역 발생국 여행 자제해야

최근 중국·태국 등 해외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및 괴질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양돈인들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부득이 단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검역기관에 사전신고해 출입국시 검역상의 안내와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양돈인들은 중국 칭하이성 등 구제역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토록 하고, 부득이 단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검역기관에 사전신고해 출입국시 검역상의 안내와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양돈장에서는 농장 출입차

량 및 출입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 농장 안팎의 철저한 소독 가축사료, 분뇨 수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구제역 방역 대책상황실

(전화 : 031-467-1851/1853)

#### ■구제역 의심축 신고

(전화 : 1588-9060)

### 오제스키병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

올해 1~6월 상반기동안 유행성 설사병(PED) 발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 유행성설사병 발생은 총 16농가 2,261두에서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42농가 8,995두에 비해 절반이상 적게 발생했다. 반면 오제스키병(AD)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오제스키병은 지난해 상반기동안 13농가, 206두에 대해 발생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4농가, 633두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6월 한달 동안에는 오제스키병(AD)과 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해외 악성전염병 실험실 운영중

경기도는 축산위생연구소내에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검사실험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8월 13일 밝혔다.

동 실험실은 경기도가 '04년 9월 3억6천여만원을 들여 연구소내

20여평 규모로 설치한 것으로 해외악성전염병을 실험할 수 있는 생물학적 안전도 3급 이상의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 “축산식품 안전하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

검역원은 각 시·도 및 지원·출장소, 생산자 단체 등 협회, 소비자 단체 등에 홍보물을 비치해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한 홍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홍보물에는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표시 및 HACCP, 축산물 안전 취급요령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다.

### 농협사료 30톤 북한으로

농협사료(대표이사 남경우)는 지난달 27일 국내사료 업계 최초로 북한 개성공단 내 영농단지에서 양돈 사료 30톤을 공급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농협 양돈사료는 젓뎀대지 15톤, 육성돈전기 15톤으로 대북 무역업체인 '시에이인터엔지니어링'을 통해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협사료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식량 등을 공급한 사례는 많으나 가축에게 먹일 사료가 공급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경남도, 돈열 재발방지대책 추진 강화

경상남도는 그 동안 추진해온 돈열 방역대책을 분석·평가하고, 돈열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을 강화키로 했다.

경남도는 올해 초 수립한 가축 방역사업계획에 따라 예방약품 공급과 농장 예찰·혈청검사 등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도내 양돈농가 1,983호의 118만두에 대해 전 두수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새로 태어나는 신생자돈에 대해서도 누락되는 돼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도 축산관계자는 7월 현재 양돈 농가의 돈열 항체 양성율이 평균 95% 이상 수준이라고 밝히고, 돈열 방역대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전 시군과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양돈농가 등에 대해 예방백신 접종 홍보는 물론 예방접종 기록대장 확인,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친환경 돼지수송전용차량 개발

청원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돼지수송전용차량이 개발되어 지난 7

월 18일 남일면 한 축산농가에서 충북도야지법인 회원 및 양돈농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출정식을 가졌다.

돼지수송전용차량은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7명의 충북도 야지법인 회원들이 청원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5t 초장축트럭 특장차를 개조, 수송 스트레스에 의한 물돼지 발생을 줄이고자 개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송전용차량은 미끄럼 방지, 단열, 환풍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출하되는 돼지를 쾌적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

## 가축사육단계에서도 HACCP 도입

### 농림부, 민간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법인 설립 계획

농림부는 지난 7월 22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축사육단계에서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도입됨을 발표하였다.

가축사육단계에서도 HACCP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축 사육에서부터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 전과정에 걸쳐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HACCP은 도축장( 의무 ) 및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집유장·축산물보관장·운반업소·판매업소까지 적용하고 있어 전국 133개 도축장과 229개 가공공장에 도입되어 있다.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HACCP 지정업무를 전담할 민간 조직을 신설해 필요한 경우 등 조직이 HACCP컨설팅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도축장의 HACCP 운용수준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 ◆도축검사의 내실화 및 효율화

규제검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도축을 위한 가축출하를 금지한다.

#### ◆도축검사원제도 도입

도축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축장의 도축해체 검사 라인에서 광우병 등 32개 병변에 대한 검사

를 실시한다.

####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도입

국내산 축산물 및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판정을 하기 전에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이의제기 및 재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해축산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업자 중복조사 거부 및 합동조사 신청권 부여

정기 출입검사 주기를 설정해 정기검사는 관계부처 합동 또는 관계부처간 상호 중복이 없도록 하고, 위법사항 시정조치 점검, 신고·제보, 위해정보 입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업소가 월 이내에 유사목적으로 2회 이상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위생과 관련해 2개 이상 부처의 검사대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합동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571-9751